미지

순간적으로 굉장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미지는 다양한 모습을 취한다. 괴물, 귀신, 거대한 곤충.

그렇다고 한다면, 미지는….

“…선배. 미지에 대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궁금한 거? 뭔데?”

“미지가 사람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은혜 선배의 모습을 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사람의 형태….”

은혜 선배도 내 말에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응. 가능할 것 같아.”

천재적인 가설을 뒷받침하는 말에 나도 모르게 몸이 떨렸다.

“귀신도 사람의 형태야. 눈이 뚫려있다던가, 입이 길게 찢어져 있긴 하지만 사람의 형태잖아?”

“그러니 가능하다고 봐야지?”

이걸로 확실해졌다. 어제 봤던 은혜 선배의 모습은 누가 봐도 이상했다. 평소의 모습하고는 아예 다른, 폭력적이고 귀신 같던 모습.

그건 어제 내가 만났던 은혜 선배가 사실….

은혜 선배의 형상을 한 미지여서 그랬던 거야…!

“선배. 저 어제 미지와 만났어요.”

“저, 정말? 괜찮아? 다치진 않았어?”

걱정하는 은혜 선배를 보고 다시 확신했다. 어제 그건 미지가 아니면 말이 안 돼.

“네. 위험하긴 했지만, 무사히 도망쳤어요.”

“그런데 선배. 그 미지….”

“선배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응?”

“어제 다시 학생회실에 돌아갔는데, 거기서 마주쳤어요. 선배의 모습을 한 미지였는데.”

“미지라 그런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게다가 왜 그렇게 닮은 건지, 하마터면 착각할 뻔했어요.”

“….”

은혜 선배는 내가 걱정인 건지 조용히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저번 복도에서처럼, 미지에게서 잘 도망쳤다고 칭찬해주려는 걸까….

“이건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네.”

“…은혜 선배?”

“어제 만났다는 미지 말이야.”

내 눈 바로 앞에 선배의 얼굴이 나타났다. 고개를 돌리는 것도 허락하지 않게, 내 머리를 꽉 부여잡은 채로 선배가 물었다.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어디 가서 어제 일 떠들고 다니지 말고,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

“….”

“아직도 내가 미지로 보여?”

“…아뇨.”

“다행이네. 대가리로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서.”

“있잖아. 나도 너처럼 미지에 대해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미지한테 잡아먹히면 어떻게 되는 걸까.”

“아직은 본 적이 없어서 말이야. 그렇게 궁금하진 않아서 확인까지는 안 했는데….”

“네가 이러면 실험해보고 싶어질 것 같네.”

“….”

“그래도 다행으로 여겨. 만약 네가 오늘 한 얘기, 다른 학생회 애들한테 했으면 당장 오늘 밤에라도 확인했을 테니까.”

선배의 말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냥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지를 것 같은 의지가 느껴졌다.

“다음부턴 말하기 전에 생각해. 알겠어?”

“….”

“대답.”

“네!”

“그래. 알아먹었으면 나가.”

간신히 선배의 손아귀에서 해방되고, 학생회실을 빠져나갔다.